베트남 민주화 이끈 고승 잠들다

틱쾅도 스님 입적… 종교 · 정치적 자유 강조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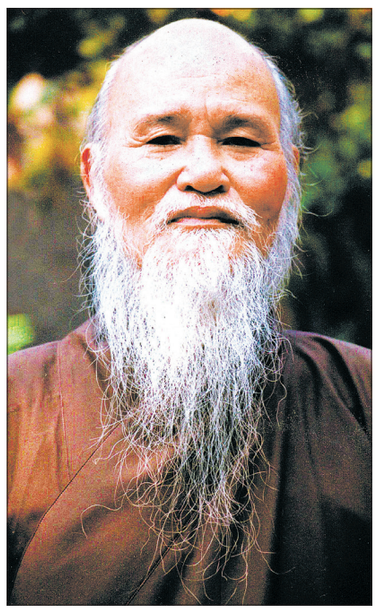
베트남의 민주화와 종교적 자유를 위해 외로이 싸워온 노스님이 끝내 입적했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베트남의 존경받는 원로, 틱쾅도(Thich Quang Do) 스님의 입적을 보도했다.

틱쾅도 스님은 세납 92세, 법랍 78세로 입적에 들었다. 입적은 파리 국제불교정보국에 의해 확인됐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제불교 정보국의 대변인은 "틱쾅도 스님은 2003년부터 베트남 정부에 의해 호치민시에 위치한 투히에우(Tu Hieu)사원에 가택연금 중이었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생전 당뇨병과 심장질환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틱쾅도 스님은 14세에 출가했다. 스님은 17세에 은사인 틱둑하이(Thich Duc Hai) 스님이 공산혁명재판소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스님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도므어이(Do Muoi)에게 "광신(狂信)과 편협을 타파하고 불교의 비폭력, 관용,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데 내 인생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베트남 전쟁 종전 후 틱쾅도 스님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비폭력 투쟁을 도모한 죄로 투옥됐다. 이후 그

법랍 78 · 세납 92세 일기로
사원서 가택연금 중 입적해
공산주의 비판, 비폭력 시위
수많은 인권상 받은 원로승



1998년 호치민감옥에서 출소한 틱쾅도 스님. 사진출처=뉴욕타임즈

의 행적과 공개성명 발표에 대한 정부의 보복으로 10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84세의 노모와 함께 추방되었으며 노모는 영양실조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지리적, 이념적 분열을 종식시키고 베트남 남북의 반체제 인사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다양한 문학작품과 번역서, 베트남 불교 연구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저술로 베트남 사회에서 존경 받는 학승이었다. 틱쾅도 스님의 대표 저술은 〈베트남 민주화 호소문〉으로 복수 정당제, 자유선거, 독립노조 등 베트남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왜곡하는 모든 문화와 이념의 폐지를 요구하는 8개항으로 된 호소문이다.

스님은 여러 차례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2005년 국제연합(UN)에 전달한 성명서에 스님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없이 빈곤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인권은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없이 인권은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틱쾅도 스님은 30년간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비폭력 시위를 통한 그의 용기와 인내로 노르웨이의 라프토 인권상을 포함한 다수의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오른바 있다.

스님은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며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했으며 정부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정부가 매 시간,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모든 통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일어나는 순간이 올 것이며 베트남에도 민주주의가 꽃 필 것"이라 희망했다.

고대 불교유적, 사기업 관리 부실

주 정부가 산업용으로 위탁, 대중 개방 막혀

인도의 고대 불교문화 유적이 사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관리 부실 상태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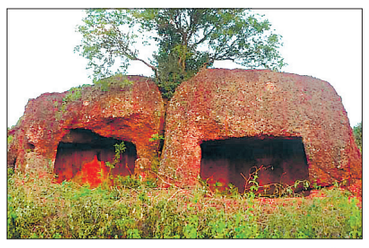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부 쿠타크 지역 차우바르에 위치한 고대 불교문화 유적 '아수라 비하라 동굴(Asura Vihara cave)'이 사기업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비영리단체 인도국립예술문화유산 신탁(The Indian National Trust for Arts and Cultural Heritage, 이하 INTACH)은 "주 정부가 해당 유적지를 포함한 땅을 산업용으로서 사기업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굴은 기원전 2세기~1세기 경 조성된 우다야기리 · 캇다기리 석굴과 유사한 형태로, 같은 시기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다야기리 · 캇다기리 석굴은 총 35개의 불교 및 자이나교 석굴승원으로 구성된다.

이 동굴에서는 불상 등 주요 유물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벵골 출신의 라마프라사드 챈다(Ramprasad Chanda) 등 유명한 역사가이자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 이 장소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고고학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INTACH는 마하나디 강 일대 문화유산을 조사하던 중 3개 암석 동굴로 구성된 이 유적지를 발견했다. INTACH의 마하나디 문화유산 조사팀의 관계자 애닐 디르(Anil Dhir)는 "이 동굴은 당초 자이나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훗날 불교 승려들에 의해 사용됐다"며 "현지 불교도들은 수년 간 이곳에서 예불 의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기업의 관리 부실 위기에 놓인 불교유적 아수라 비하라 동굴. 사진출처=IGNCA

하지만 이 유적지가 사기업의 관리 하에 넘어가면서부터 일반 대중의 사용이 금지됐다. 마을의 불자들은 이를 강력히 항의했지만 무소용이었다. 애닐 디르는 "주 정부가 해당 유적지의 고고학적 가치를 간과함으로써 역사에 큰 불운으로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INTACH 측은 "해당 유적지가 다시 회수돼 주정부에서 관리, 일반인과 주민들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보호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보존을 위해 적절한 안전 및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러시아 불교도, 새해맞이 행사 열어

러 연방 칼미크 공화국 기념법회와 전시회 개최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믿어온 러시아의 칼미크 공화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불교의례가 열렸다. 2월 24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칼미크 공화국의 중앙사원에서 열린 새해 행사를 보도했다.

칼미크 공화국은 티베트 역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새해를 맞이했다. 티베트 역법에서 음력 새해의 첫 달은 '순백의 달(月)'로 불린다. 이 달에는 어떠한 선행이나 수행을 하든 그 공덕이 10만 배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 다양한 법회와 기도회가 열린다. 티베트 불교문화권에 속하는 칼미크 공화에서도 이를 기념해 새해맞이 법회와 전시회가 열렸다.

새해 첫날, 칼미크 공화국의 수도 엘리스타에 위치한 부르칸 박신 알탄 수메(Burkhan Bakshin Altan Sume)사원에서 대규모 기념법회가 열렸다. 사원은 2004년 달라이라마가 기공법회를 집전했고, 총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칼미크 최대의 불교사원이다.



새해맞이 예불을 올리는 칼미크의 스님들. 사진출처=칼미크 중앙사원

이날 법회에서 칼미크의 스님들은 칼미크 신화에 등장하는 호법여신인 '오론 텡그리(Okon Tengri)'에게 기도와 공양을 올리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했다. 법회장엔 거대한 오론 텡그리의 탱화가 걸렸고, 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하는 동안 불자들은 탱화를 향해 절을 하거나 전통적인 기도문들을 염송했다.

칼미크 설화에서 오론 텡그리 여신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세상을 파괴하려했던 사악한 왕과 결혼하여 왕과 왕자를 불법으로 교화하고 천상으로 돌아갔다. 이후 여신은 새해 첫 달인 순백의 달 동안 세상에 내려와 불법을 지키며 선업을 쌓는 이들을 축복한다고 한다.

법회는 러시아 · 시베리아 달라이라마 대사인 텔로 툴쿠 린포체를 법주로, 칼미크 승단의 지도자인 샤진라마(Shajin lama)가 이끌었다. 또한 칼미크 공화국 정부수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칼미크 공화국의 수반들은 샤진라마로부터 지장보살의 큰 원력처럼 더욱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당부 받으며 '지장보살 기념상'을 수상했다.

텔로 툴쿠 린포체는 이날 법문에서 "순백의 달은 봄이 도착하고, 자연이 깨어나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을 상징한다. 이는 칼미크 민족이 태고부터 보존해 온 최고의 전통과 풍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가치이자 신념인 불법에 대한 발전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나타낸다"며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가열차게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법회가 끝나고 사원의 3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사위성의 신변'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6사 외도를 조복하기 위해 보인 15가지 기적을 15폭의 탱화로 묘사했다. 이 탱화들은 달라이라마가 사원에 기증한 작품들 중 하나다.

칼미크 공화국 지역의 모든 사찰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보름간 대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새해의 시작을 수행 정진으로 시작하는 러시아 불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김민재 객원기자

영향력 큰 지도자 1위 '달라이라마'

왓킨스 선정 100인 중… 2위 프란치스코 교황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사진>가 왓킨스(the Watkins)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왓킨스 선정 20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00인 중 1위에 꼽혔다. 왓킨스는 영적 서적만 취급하는 대형 서점으로, 1893년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졌다.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00인을 선정하고 있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해당 명단에 오른 주요 인물로는 2위 프란치스코 교황, 3위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5위 유명 토크쇼 진행자 겸 기업가 오프라 윈프리, 7위 틱낫한 스님 등이 있다. 그레타 툰베리, 오프라 윈프리 등이 선정됨에 따라 해당 100인 명단은 종교를 초월한 영적 지도자를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왓킨스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 철학에 대한 가르침은 물론, 국가를 초월한 평화 작업으로 친절과 연민을 실천한다"고 평했다.

달라이라마는 앞서서도 꾸준히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1위), 오프라 윈프리(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1위)에 이어 2위였다. 달라이라마가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2016년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